

근로자가 우울한 '근로자의 날'

광주 체불임금 사업장 1870곳...체불액·인원 증가

3월 광주 실업률 5%·전남 4.5% 실업자 수 급증세

노동절을 맞은 지역 노동자들의 명암이 엇갈린다. 대기업과 달리,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겐 그저 '그립의 딱'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쉬지 못하고 출근하는가 하면, 밀린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해 힘들어하는 노동자들도 많아졌다. 노동의 가치를 되새기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면서 노동자 지위를 향상하기 위한 기념일인 '근로자의 날'이 무색할 지경이다.

◇중소기업 노동자, 박탈감·소외감 커
=광주시 서구의 디자인전문 중소기업 A 회사 직원들은 근로자의 날인 1일 '전원 출근'을 했다. 대체 휴무나 추가수당도 받지 못했다.

광주에서는 동종업계 대부분이 '근로자의 날'에도 쉬는 곳이 없어 '눈치 보면서' 관행적으로 출근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푸념이다.

A 회사 직원은 "시일을 맞춰야 할 긴박한 업무가 있는데도 대체휴무에 대한 한마디 말도 없이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았

다"며 "남들은 쉬는 날 일하러 나온 것 자체에 자괴감을 느낀다"고 하소연했다.

동구 제조·유통 관련 중소기업 B 회사도 직원들 모두 전원 출근토록 했다. 이달 초까지 납품기한을 맞추려면 매일 야근을 해도 빠듯해서다. 이 회사 직원들은 그나마 대체휴무를 쓸 수 있지만 있는 휴가도 모두 쓰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불만이 나온다.

B 회사 대표는 "인건비도 오르고 경기도 좋지 않아 지역 중소기업들 모두 힘든 상황"이라며 "직원들도 자괴감이 들겠지만 쟁겨주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대표 심정도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금도 못 받는데 휴일은 무슨..."
=1일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체불임금 사업장은 1870여곳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1400여곳보다 많아졌다.

같은 기간 전국 중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 1798만6000㎡로 2016년 말 대비 11.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로, 체불액도 870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더블스타로의 매각이 확정되기 전 급후타이어 직원들(5100여명·체불임금 700억원)을 제외하더라도 지난해 같은 기간 3000여명의 노동자가 106억원 규모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된 것을 감안하면 노동자들의 삶이 더 팍팍해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나마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관할하는 광주와 나주·화순·곡성·구례·담양·장성·영광·함평 외 여수지청, 목포지청 관할 지역의 체불임금 사업장과 노동청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까지 감안하면 체불임금으로 힘들어하는 노동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청의 적극적인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이 요구되는 이유다.

◇"일하고 싶어도..."=경기 침체와 구조조정 등이 맞물리면서 광주·전남에 실업자들도 급증하는 모양새다. 일자리를 걱정해야 하는 실업자들 입장에서 '근로자의 날'은 남의 일이나 다름없다.

호남지방통계청의 '광주·전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3월 광주지역 실업자는 3만 9000명으로 1년 전(2만명)보다 1만9000명 늘었다. 월별로 보면 2011년 3월(3만8000

명) 이후 18년 만에 최고치다. 제조업 종사자는 1년 전보다 5000명 줄어 10만8000명에 머물렀다.

실업률도 치솟았다. 광주지역 3월 실업률은 5.0%로, 월별 실업률로는 지난 2009년 3월(5.0%) 이후 9년 만에 최대치다. 광주의 경우 올 들어 1월(3.1%)→2월(4.5%)→3월(5.0%) 등으로 실업률이 가파른 상승세다.

또 지난 2004년 이후 15년 동안 광주 실업률이 5.0%를 넘어섰을 때는 ▲2005년 2월(5.0%) ▲" 3월(5.5%) ▲" 4월(5.0%) ▲2006년 2월(5.1%) ▲2009년 3월(5.0%) 등 5차례 뿐이다. 역대 '최악의 실업 대란'이라는 말이 나올만하다.

전남지역의 3월 실업률은 4.5%로 2월(4.8%)보다 다소 낮아졌지만 지난해 2월(5.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3월 실업자는 4만4000명으로 지난해 2월(5만4000명) 이후 가장 많았고 지난해 11월(실업자 2만명) 이래 12월(2만6000명)→2018년 1월(3만명)→2월(4만7000명) 등으로 실업자 수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현대차, 업그레이드 '2018 엑센트' 출시

4도어·5도어 모델, 고객 선호 편의사양 확대

현대차가 '2018 엑센트'를 2일 출시한다.

2018 엑센트는 4도어 모델인 '엑센트'와 5도어 모델인 '엑센트 위트'로 나뉘며 모든 트림에 방향지시등 내장 아웃사이드 미러를 기본 적용했고 신규 색상으로 '갤럭시 그레이'를 추가했다.

4도어 모델에는 고객이 선호하는 편의사양을 확대 적용한 '스마트 스페셜' 트림을 추가, 선택 폭을 넓혔다.

스마트 스페셜 트림은 ▲인조가죽 시트·도어 센터트림·센터 콘솔 등 내장 고급화 ▲블루투스 핸드프리·스티어링

휠 오디오 리모컨 ▲미세먼지 포집 성능을 강화한 마이크로 에어필터 등을 기본으로 적용했다.

현대차는 엑센트 엔트리 트림인 '스타일'에도 후방주차 거리 경고, 무선도어 잠금장치를 기본 적용하고 자동변속기를 선택사양으로 추가했다.

판매가격은 4도어 모델 ▲1.4 가솔린 1159만~1751만원 ▲1.6 디젤 1469만~2079만원, 5도어 모델 ▲1.4 가솔린 1422만~1766만원 ▲1.6 디젤 1760만~2094만원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삼성 냉장고 '세프컬렉션'

7가지 모드로 맞춤 보관

삼성전자가 2018년형 '세프컬렉션' 냉장고 신제품을 출시했다.

'세프컬렉션'은 지난 2014년 출시된 제품으로, 업계 최고의 미세 정온 기술과 미술품 셰프들의 인사이트를 반영해 국내 프리미엄 냉장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광주공장에서 생산되는 이번 신제품은 '메탈쿨링'을 냉장·냉동실 뿐 아니라 다양한 식재료를 전문적으로 보관해 주는 '맞춤보관실'까지 확대, 강화한 게 특징이다. '맞춤보관실'은 영하 23도에서 5도까지 최대 7가지 모드로 온도 조절이 가능해 식재료 특성에 따라 최적 보관이 가능하다.

김지을기자 dok2000@



기아차, 협력사 차체정비 품질 강화

수리치침 표준화·우수사업 인증제 도입

기아자동차가 신소재 적용 확대에 맞춰 서비스 협력사의 차체정비 품질을 강화하고자 관련 매뉴얼을 손질한다.

기아차는 서비스 협력사의 차체 수리 지침을 표준화하고 차체 수리 우수사업장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기아차는 최근 신차에 충돌 안전성 확보 및 차량 경량화를 위해 초고장력 강판, 알루미늄 등 신소재 적용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새로운 차체에 맞게 수리 매뉴얼을 재정비했다.

또 차체 수리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정비 인력을 확보하고 차체 수리용 특수 장비를 보유했거나 안전한 작업 환경을 갖춰 고객이 신뢰할만한 정비사업장임을 증명하는 '차체 수리 우수사업장 인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차량 기술 변화에 맞춰 정비 서비스도 선제적으로 발전시켜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전남 중국인 소유 땅 늘었다

지난해 각각 9.6%·전남 4.5% ↑...외국인 전남 토지매매 줄어

중국인이 보유한 광주·전남 토지 면적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국인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들의 전남지역 토지 보유 면적은 작년보다 줄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광주의 경우 5만3000㎡(125필지·147억원)로,

전년도(4만8000㎡·113필지)에 견줘 9.6% 증가했다.

전남지역의 중국인 토지 보유 면적도 26만2000㎡(483필지·180억원)로 전년도(25만1000㎡·418필지 175억원)보다 4.5%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중국인 보유 토지 면적

은 1798만6000㎡로 2016년 말 대비 11.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인의 전국 토지 보유량 증가율은 2014년 98.1%까지 치솟았으나 2015년 23.0%로 내려선 데 이어 2016년 13.1%에서 작년까지 3년 연속 줄었다.

전체 외국인이 보유한 광주지역 토지 면적은 290만3000㎡(3110억원)로 나타나 전년도 288만6000㎡(3235억원)에 비해 1만7000㎡ 늘어난 반면 보유 금액은 125억원이 감소했다.

전남의 외국인 보유 토지는 지난해 말

3776만7000㎡(2조5190억원)로 전년도(3801만7000㎡·2조5770억원)보다 25만㎡ 줄었고 보유 금액도 580억원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외국인 보유 토지가 4271만9000㎡로 전체의 17.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전남이 뒤를 이었다.

한편, 전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전년 대비 2.3%(534만㎡) 증가한 2억3890만1000㎡로, 전체 국토 면적의 0.2% 수준이다. 중국인들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제주(52.5%)가 가장 많았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아시아나, 인천~베네치아 신규 취항

장거리 노선 강화

아시아나항공이 1일 인천~이탈리아 베네치아 노선에 주 3회(화·수·금요일) 신규 취항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인천공항 1여객 터미널에서 김수현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베네치아 노선 신규 취항식을 열었다. 베네치아 취항은 동아시아 항공사 가운데 최조라고 아시아나는 소개했다.

이 노선에는 300석 규모의 보잉 B 777-200 항공기를 투입한다. 이 항공기

는 퍼스트클래스를 얹는 대신 비즈니스 좌석을 180도로 펼 수 있는 침대형 좌석 '비즈니스 스마트룸' 좌석으로 업그레이드했다.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베네치아는 산 마르코 광장, 리알토 다리, 무라노 섬, 바포레토(수상 버스), 곤돌라(나룻배) 등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다양해 여행객이 끊이지 않는 인기 관광지다.

아시아나는 오는 7월 노르웨이 오슬로에 전세기편을 띄우고 8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신규 취항하는 등 장거리 노선을 강화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새로운 세계를 보다

신세계안과

밝은광주안과가 ●● 신세계안과로

7월 1일 이름을 바꿉니다

8인의 안과전문의(현 의료진 그대로)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90% 융자지원사업 / 선택순접수

연금발전소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고박고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평만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3,000평 이상)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